

파리에서의 파도: UNESCO와 함께 한 쓰나미 대비

- 이름 : 이우영
- 근무기구 및 부서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 직위/직급 : 인턴
- 지원경로 : 기상청 국제 기상기후전문인력 양성사업
- 근무기간 : 2023.03. - 현재

들어가며: 국제개발협력의 길

나의 국제기구를 향한 여정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시작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이 무엇인지 모르던 어릴 때부터 나는 소외계층 인권증진에 관심이 있었다. 학기 중 틈틈이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었고, 대학생 때는 베트남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다. 그 경험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의 길로 발을 디뎠다. 내 목표는 거창했다. 누구도 뒤쳐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에서 YP(영프로페셔널)로 근무하며 다양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폭력피해 여성 및 여아 지원사업’에선 UNFPA(유엔인구기금)과 협업을 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국제기구에 대해 내가 갖고 있던 막연한 환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국제기구 진출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소외계층 인권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베트남 YP 경험은 나로 하여금 재난재해경감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다. 재난재해 경감 사업을 지원하며 느낀 점은 재난상황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복구의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바로 소외계층이라는 것이었다. 관심사를 구체화한 이후에는 국제협력의 학문적 성과의 필요성으로 석사를 시작하였다. 국제기구를 진출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열정이 아닌 학위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석사과정을 밟으며 KF(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의회와 같은 국제기구 내 입법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지역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입법 과정을 실제로 볼 수 있었으며 한국-유럽연합 정상회담을 지원하는 등 공공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근무를 하는 동

안 나는 관심 지역인 아태지역 대외정책 총국에서 트레이니로 근무하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Fact sheet(사실 자료)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이 2002~2011년 사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관심이 생긴 나는 같은 해 기상청 주관 ‘국제 기상기후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수료하여 면접을 본 후, UNESCO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UNESCO IOC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 기구로서 지난 50년 동안 태평양 쓰나미(지진해일) 경보 시스템을 조정해왔으며, 2004년 12월 26일의 인도양 쓰나미 이후 세계 쓰나미 경보 시스템 개발을 조율하였고 이는 현재 세계의 모든 해양을 포함한다. 지금 나는 이곳 파리에서 쓰나미 대비를 배우고 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보: 대비

UNESCO가 주도하는 쓰나미 경보 시스템은 쓰나미를 신속하게 탐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경보를 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IOC의 쓰나미 부서에서는 쓰나미 레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는 지역사회가 쓰나미 위험 감소 계획을 개발하고, 위험 구역 지정과 더불어 교육자료 개발, 대피 지도와 정보를 공개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나는 이 쓰나미 레디 프로그램을 전담으로 맡아 현재 NOAA(미연방해양대기청)과 협업을 하며 쓰나미 레디 뷰어를 최신 정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위에 열거한 감소 계획, 대피지도, 교육자료 등을 각각의 지역사회별로 MG 74(매뉴얼 및 가이드)에 맞게 분류하여 지도 형식으로 보이는 웹사이트이다. 처음에 본부에서 업무를 할 땐 지역사무소에 비해 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수혜자를 볼 수 없어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쓰나미라는 재난은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의 해안 인구에 극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해양 지역은 쓰나미 발생 위험에 처해 있으며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업무를 하며 여러 대륙, 국가, 지역사회와 프로그램 시작 단계부터 협업

을 할 수 있었고 마지막 단계인 쓰나미 레디 Certificate(증명서)와 plate(판본)까지 직접 제작하여 전달하며 마무리를 하였다. 처음에는 국제협력이라는 전공을 가지고 해양/재난관리 분야에서 업무를 하는 것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담당한 업무에 대해 주어진 세세한 지침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에서 국제개발협력을 경험한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 일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해양학/쓰나미 부서라고 하여 해양학/재난관리 전공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국제협력 전공자나 어문 전공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기구에는 참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다행히 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감독관이자 부서장이 이렇게 협업을 중시하는 나의 업무 방식을 존중해 주었고, 인턴십 연장 제안을 받아 같은 부서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으며 기존 업무에서 한층 심화되어 전반적인 쓰나미 레디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를 하게 되었다. 나의 이러한 노력이 쓰나미 피해가 예상되는 많은 커뮤니티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재난 대비는 가장 큰 경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더 넓은 시야: 세상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경험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볼 때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주었다. UNESCO에서는 무수한 국제회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근무하는 IOC 섹터에서는 IOC General Assembly(총회)를 진행하는 데 운이 좋게도 2023년 6월, IOC General Assembly에 직접 참여하여 약 150개국 회원국의 국제협력과 외교 과정을 눈앞에서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공식회의 전 오전에 IOC Member 전체가 모여서 회의 진척 사항을 공유하는 Pre-meeting(사전 회의)에 앞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배부하는 역할을 맡아 General Assembly 아젠다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 대부분의 국제회의는 중간에 coffee break를 가지고 회의 종료 후에는 UNESCO 7층의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테리아에서 상호 교류를 하는데, 인턴인 나에게도 열려있는 네트워킹의 기회가 감사하고 인상 깊었다. 이제 막 국제기구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나에게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에 맞춰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며 조언을 하는 디렉터와 각국의 대표단이라니 믿을 수 있는가? 단언컨대 국제기구에서는 100명의 직원이 있다면 그 100명이 다 다른 배경과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는 다른 경험을 통해 국제기구의 문을 먼저 두드린 이들이 해주는 조언은 나에게 국제기구진출에 대한 불을 더 크게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인턴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기구에서의 커리어를 이어가며 개발 협력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외교부 혹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주관의 UNV, KMCO, JPO 등 한국 정부에서 파견을 지원하는 다수의 프로그램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지원을 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나의 목표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 단계씩 차근차근 국제기구 진출의 문을 두드리는데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또 다른 문을 두드리기 위해 UNV 전문봉사단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근무를 하고 느낀 점은 국제기구는 기구 내 시스템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한국인으로서 나는 엔트리 단계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를 정말 많이 가질 수 있었다. 실제로 KF 글로벌 챌린저, 기상청 국제 기상기후전문인력 양성사업, 환경부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를 참여하며 국제기구 진출의 가닥을 잡을 수 있었고, 이러한 모든 경험이 쌓이고 쌓여 다음 문을 여는 데에 열쇠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 나는 누구보다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던 대학생 시절의 나와 같이 시작이 두려운 여러분들에게 우선 인턴, UNV 같이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 보시라 조언하고 싶다.

끝마치며: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재난관리와 국제협력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쓰나미와 같은 대규모 자연 재난에 있어 재난 대비와 더불어 일상 복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일련의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이미 여성, 어린이, 이주자,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서 더 큰 위협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현존 체제의 영향을 받아 재난 상황에서 더욱 큰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으며,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출산, 성폭행, 학대와 같은 다양한 위협에 직면한다고 한다. 따라서 나는 인턴 근무 종료 후,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에서의 쓰나미 관련 재난 후 성기반 폭력(GBV)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재난으로 인한 이주민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 UNV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재난재해 피해에서만은 보호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아태지역 재난관리 전문가로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파리 UNESCO IOC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재난관리에 대한 꿈을 키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가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어릴 때는 막연히 멋있어 보여 동경하던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서 한 발자국을 내디딘 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또 ‘국제공무원’으로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번 실패의 고배를 마실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걷는 이 국제개발협력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자 한다. UNESCO IOC의 경험은 이 길을 걷는 나에게 마치 사다리와 같은 경험이었다.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위에서는 길이 잘 보이듯이, 들어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한 번 열린 국제기구 진출의 문은 쉬이 닫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사다리였던 UNESCO IOC의 경험 공유가 모두에게 각자의 사다리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European Parliament(유럽의회) 본부에서 본인



2.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에서 본인



3. UNESCO IOC(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정부간해양학 위원회) 23rd General Assembly(제23회 총회)



4. 담당하는 Tsunami Ready Viewer(쓰나미 레디 뷰어)